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사물의 사유적 표현과 무의식속 의미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김민정

# 사물의 사유적 표현과 무의식속 의미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김민정

# 인 준 서

김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예술은 현실세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물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인생의 의미와 인간 조건 및 현존의 가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다”라는 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의 말처럼,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주변상황과 일상의 체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그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작품에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친 형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은 인간에게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적 혜택을 준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인간을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로 불안정한 존재로 남아있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모순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에 의해 경험되고 관조된 이러한 현실의 모습은 상징화를 거쳐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시각화된다. 현실의 의식을 초월한 실제성을 가진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꿈을 이루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결코 재현된 이미지가 아니며, 그것은 의도적 변형의 과정 없이 주관적 가치로 표현하고자 사물을 의미를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표현하고자 한다.

사물의 본질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통해 표출시켜 나간다. 즉, 타고난 이성과 상상력으로 창조자가 됨으로서 자율적 세계의 내적인 것을 인식하고 구체화하여 새로운 정신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 문명 속에서 소외와 정신적 빈곤을 느낀 인간은 자체 비판을 통해 주체

의 재인식과 인간성의 재발견이 요구되었고, 인간과 사물과의 철학적 관계의 재탐구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사유하고 물질적 요구의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인식하고자 하며, 그것을 반영하는 일상이미지의 사실적 재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상징 매체로서 일상이미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 주관적인 시각을 부여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	---

## II. 작품 형성 배경

1. 무의식과 몽상 .....	3
2. 응집력과 상징성 .....	7

## III. 작품의 특성

1. 조형적 접근성 .....	11
2. 이상을 향한 무의식의 행위 .....	13
3. 이미지를 통한 대상의 재인식 .....	15

IV. 작품 분석 .....	17
-----------------	----

V. 결론 .....	31
-------------	----

## 참고 문헌

**ABSTRACT**(영문초록)

## 작 품 목 차

- 【작품 1】 심리적 보호색, 32 × 22 × 15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 17
- 【작품 2】 심리적 보호색, 162 × 123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 19
- 【작품 3】 심리적 보호색, 503 × 1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 21
- 【작품 4】 심리적 보호색, 145.5 × 1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 23
- 【작품 5】 심리적 보호색, 160 × 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 25
- 【작품 6】 심리적 보호색, 80 × 12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 27
- 【작품 7】 심리적 보호색, 110 × 82cm, 순지에 혼합재료, 2006 … 29

# I. 서론

본인의 작업은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예술은 시대정신의 반영’ 이라고 뤼네(Taine, Hippolyte-Adophe 1828~1893)는 지적한바 있다.<sup>1)</sup> 그것은 예술이 단순한 표현양식으로 존재하다기 보다는 인간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정신을 스스로 창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대 조류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불균형적인 발달이 가져온 인간의 가치관 혼란, 소외의식,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정한 존재로 남아있는 인간을 사물의 형상을 통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환상을 인간의 반복적 무의식의 결과물들과 내면적 형상으로 의인화 시키는 표현에서 출발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조형적요소인 기본적 조형요소들과 내적 조형으로의 요소도 지니고 있는 표현 방식으로 형성되어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시각 대상이면서 은유되어 보여진다. 이것은 현실의 모순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방식보다는 우의적이고 감성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의 주제는 현실에 대한 표현방법을 관심과 의식에 따라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창작활동으로 오게 된 동기이다.

---

1) 프랑스의 철학역사연구가 뤼네(Hippolyte-Adophe Taine, 1828~1893)는 평론가 · 철학자 · 역사가. A.쿵트의실증주의적 방법을 써서 과학적으로 문학을 연구하였으며, J.E.르낭과 함께 19세기 후반 대표적 사상가로 평가된다.  
인종·환경·시대의 3요소를 확립하고 《영국문학사 L'Histoire dela littérature anglaise》(4권, 1864)를 썼다. 파리의 미술학교에서 20년간 미술사를 강의 하였으며(1864~1884), 《예술철학 La Philosophie de l'art》(2권,1882)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대상의 구현보다는 지극히 주관적 세계의 표출을 지향하며, 무의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형상을 통해 화면의 질서를 추구하고 또한 인간의 정신세계와 인식이 변화되어가는 형상들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형성 배경에 주목하여 두 개의 소주제로 분리해 정리하였다. 하나는 인간에게서 무의식이 갖는 의미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아보며 칼 융(Carl G.Jung 1875~1961)과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언급하는 무의식의 예술적 개념을 관찰하였고, 다른 하나는 관념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통해 나타내는 방식의 사물들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의 작품에 보여지고 있는 응집성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 III장에서는 앞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작품의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설명하였다. 총 세 개의 소주제로 작품의 전개에 있어 내적인 조형적 접근성의 방향으로 접근해 설명하였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론적 바탕을 통해 사물과 내면세계를 연결 지어 화면으로 드러나는 몽상의 형태들과 무의식의 표출 행위인 사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심리적 접근 방식으로 작품을 설명하였다. 인간의 시대적 흐름과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의 사람들에게서 오는 내면세계의 공허함과 거기에서 오는 자아 존재의 상실감등을 직관적 감성영역을 통해 변조시킴으로써 본인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대상의 재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작품 분석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의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생각들로 정리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며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세계를 수용하며 폭넓은 작업정신과 앞으로의 작업방향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II. 작품 형성 배경

### 1. 무의식과 몽상

무의식의 영역에는 수동적인 영역과 능동적인 영역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는 꿈의 영역이고 후자는 몽상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정신세계의 영역 중 하나인 무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몽상은 예술 활동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칼 융(C.G.Jung 1905~1961)<sup>1)</sup>은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ego)는 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알고 있는 마음의 부분은 의식뿐이며 무의식에 비유한다며 의식은 심리세계 전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큰 바다의 작은 섬 빙산의 일각 등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2)</sup> 이것은 무의식에 의식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현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무질서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항상 존재하고 그 공간은 어느 것으로도 명확하게 설명 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문명으로도 증명 할 수 없는 오직 상대방의 의식만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sup>3)</sup>가 주로 개인적인 의식을 분석해 이성적 의식 아래 신화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하였다면, 융은 무의식을

---

1) 칼 융 (C.G.Jung, 1905~1961)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2) J.야코비. [칼 융의 심리학], 이태동역, (서울: 성문사1982)pp15-19

3)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착각해학과 같은 정상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고, 소아성욕론(小兒性慾論)을 수립하였다.

‘개인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과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체계를 개선시켰다. 그리고 융은 개인적인 무의식아래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역사적인 시기, 사회적, 종교적 집단에 관계없이 초월적인 어떤 힘에 대한 공포와 위험, 애증, 생과 사명감의 원리적인 힘 등의 보편적인 인간의 전형적 집착이라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가정하였다.<sup>4)</sup>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무의식은 개인무의식을 포함하는 포괄적 형태로 보여진다. 결국, 개인의 무의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획득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초개인적 경험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뭉쳐져서 억압된 개인의 무의식만을 인정한 부정적인 입장과는 달리 리비도<sup>5)</sup>를 성적인 것에 국한 하지 않고 모든 지각, 사고, 감정, 충동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간주하였다. 다시 말해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성적에너지로 좁은 견해를 보았다면 융은 보다 폭넓은 생명에너지로 본 것이다.

또 다른 넓은 의미로 무의식을 해석하자면, 무의식의 세계는 전이(deplacement)와 응집(condensation)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식 세계에 나타난다. 전이(轉移)는 무의식중에 돌발적으로 생성 되는 것이고 응집(凝集)은 충동적 사고가 한정된 기호와 이미지로 표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듯 전이와 응집이 절묘하게 녹아든 작품이야말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의 여러 특질적인 내용들이 응집되어 형성된 것이 개인 무의식이며 이것이 어떤 무의식의 깊이까지는 일정하게 존재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개인적

---

4) Jacovi Jeande, [칼 융의 심리학] 이태동역 (서울:성문사1982)pp.46-48

5) 리비도(libido) - 사람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성욕, 또는 성적 충동.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기초개념.

인 성향을 벗어나 누구에게나 찾을 수 있는 일반적 보편성을 보이게 된다.

예술은 무의식과 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인간의 영원한 상징들을 형상화하며 하나의 완전한 예술작품을 남기기 위하여 이들을 형상화하고 다듬는 일이기 때문이다.<sup>6)</sup> 이렇듯 예술가는 스스로에게 집중 되어야 만이 그 작가의 고유한 내면성을 화면에 투영 시킬 수 있는 것이며 자아의 내면세계를 완벽히 구현하고자 한다면 무의식의 무아상태의 경지에 도달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짚어보면 무의식의 영역을 수동적인 무의식의 영역이 꿈이라면 몽상(夢想)은 능동적인 의식의 영역인데, 능동적인 의식인 몽상과 억압 되지 않는 무의식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내적 본성을 인식하고 원초적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심리의 근원적 영역으로한 의식의 근거이고 원인인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어린아이가 가장 애착을 느끼고 몰두하는 것은 놀이다. 어쩌면 우리는 놀고 있는 아이야말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세계의 사물들을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동일한 것으로 짓고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가와 놀이를 하는 아이의 동일함 역시 현실과 자신의 몽상적 세계를 선명하게 구분하면서도 창조 행위에 엄청난 양의 정의적 움직임이 쏟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 창조라는 세계의 비현실성에서부터 예술적 기법에 관계된 매우 중요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 그대로라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몽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변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아이일 때만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단지 대상만 바꿨을 뿐 꾸준히 놀이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

6) 올란디 야고비, [칼 융의 심리학 해석] 권오식 역, (서울:홍신문화사,1990)p.141

7) 지크문트 프로이트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역, 열린책들, 1998, p.82-84

몽상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면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몽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모든 몽상은 욕망의 완결이며 동시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보정(補整)이다. 몽상을 움직이는 욕망은 몽상을 쫓는 사람들의 성별과 성격과 생활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것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하나는 야망과 관련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욕망이다. 그러나 상상 행위의 결과물들 등은 언제 어디에서나 고정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변화무쌍한 삶의 모습에서 형성된 것들이고 개인적인 상황들이 변화할 때마다 같이 변화하며, 또 매번 우리가 흔히 시대의 각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국들을 덧붙이게 된다. 몽상과 시간의 관련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몽상은 재현 행위의 세 순간 사이를 부유(浮遊)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8)</sup>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구조주의(構造主義)<sup>9)</sup>의 선구자인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 “무의식은 의식이 정상적인 활동, 유용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운 활동으로 인지한다.”이라고 하며 무의식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는데 꿈속의 상상은 삶의 가장 깊이 내재 되어있는 본능이며, 꼭 도달해야 할 목표 없는 순수한 갈망으로서, 최초의 정신적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몽상은 창조적이며 이상을 향한 능동적 꿈으로서 꿈이 저절로 생긴 무의식의 영역이라면 몽상은 만들어낸 의식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능동적인 의식 즉, 몽상은 억눌리지 않은 무의식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내적 본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감성, 즉 상상력의 힘을 되찾는 것은 본인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며 인간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와

8) ibid. p.86-88

9) 구조주의(構造主義) - 구조는 경험적 현실에서 출발해 구성되지만, 거꾸로 현실을 조직화해 주고 밝혀줄 모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구조주의는 또한 새로운 철학적 함축을 제시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예를 들어, 친족관계가 상징적 교환의 한 형태라는 것, 일반적으로 모든 소통 형식은 그것들이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부터 출발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인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의 만남,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되는 세계와의 접점(接點)에서 조화롭게 풀어나가며 능동적인 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이 말은 제 그림에서 현대라는 응집된 덩어리들과 사물의 욕망이 좀 더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인간은 내면세계에 잠재되어있는 예술적 욕망을 외적 규범이나 심리 상태로 인해 억눌리며 무의식 적으로 변형과 왜곡의 반복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예술가들은 이러한 작가 자신의 내면 심리에 지배받으며 자발적으로 내면세계를 감지하고 억압된 내면 의식은 무의식 공간에 차츰 쌓여간다.

이렇듯 본인이 본 현대인들은 현대의 작가들이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아를 여러 개의 부분적인 자아들로 나누게 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 결과로 여러 정신적 갈등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의인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 2. 응집력과 상징성

현대라는 대량생산이 가져다준 문명은 여러 작업에서 기호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되어 출현했다. 디지털 혁명과 함께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부가된 새로운 정보세계는 더욱 발전되어 수많은 이미지가 생산되고 흘러 다니며 다시 사라진다. 이러한 것들의 반복 속에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의 덩어리들은 응집(凝集)<sup>10</sup>되어 하나의 결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시간의 진행 과정까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

---

10) 응집(凝集)-한군데에 엉겨서 뭉침.<의학>적혈구나 세균 따위의 입자상(粒子狀) 항원이 항체로 결합되어 덩어리가 되는 현상.<화학>안정성을 잃은 콜로이드 따위의 입자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는 현상 또는 분자나 원자가 모이는 현상. (한+국어사전 중), 남영신 저, 성안당, 2005

본인의 작업에서는 사물과 이외의 요소에 주관적인 관점을 두고 내적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획일화된 건물의 응집이라는 이외의 요소와 사물의 요소들을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일컫는 응집이란 결정적인 결과물로 만들게 해준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되어 진다.

은유의 원리는 어떤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리라고 했다. 이때 은유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일종의 관념인 것이다.

상징은 하나의 관념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 통하여 나타내는 방식을 일컬으며 곧 상징은 사물들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이나 개념 따위에 대해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징은 유사성, 상호관련성을 갖지 않는 두 사물을 매개시키는 인식의 형식이며 그 결과물로서 상징은 의미를 지시한다. 미적 형식속에서 상징은 자기자신을 구체화시켜 의미를 부여하고 언어로서의 구실을 한다.

칼 융은 “상징적 내용은 이미지 안에서 직접 지각된다고 하였으며, 상징은 ‘의미’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미지와 의미는 같은 것” 이라고 하였다.<sup>11)</sup>

상징적 과정은 상(像)에서의, 그리고 상의 체험이다. 부정과 긍정, 상실과 획득, 밝음과 어둠의 리듬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시작은 거의 항상 막다른 골목이나 불가능한 상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목표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이나 더 높은 의식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응축되어 단 하나의 꿈이나 혹은 짧은 체험의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막 진행되려는 개인의 출발 상황의 종류와 도달하려는 목표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도

---

11) 일상이미지의 재현을 통한 양가성 표출에 관한 연구, 안성하, 홍익대대학원, 2003, p.17

있는 것이다.

당연히 상징의 풍요함이 전혀 일정하지 않고 동요도 심하다.<sup>12)</sup> 그래서 예술가의 상징은 자신안에서 주관적일 수 있고 하나의 사물을 상징하는 개념은 작가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작품에 있어서의 상징은 거의 고유한 언어일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을 자유롭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상징화라는 능력에 의해서 그 주변의 물리적 환경, 생물학적 기능, 사회적 능력들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미와 욕망, 현실등과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총체적 행위를 재구성한다.<sup>13)</sup> 그러므로 예술가는 현대를 자신의 내부에 끌어들여 변화시키고, 자신의 감각, 정서 합리적인 사고 등 인간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현대와 결합시켜 형상화한다. 상징성에 비슷한 예시 중 하나인 오브제 표현을 들 수 있다. 미술에서의 오브제관(觀)은 흥미있는 미적 인식을 문제를 투입하고 있으나, 오브제<sup>14)</sup>는 예술의 재료·형식·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 되었다. 미술과 오브제들의 만남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의 하나로 파피에 콜레(Papier colle)<sup>15)</sup>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의 등장은 여러 가지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볼때에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마티스나 피카소, 브라크 등과 팝아트 작가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캔버스에 부착해 질감을 나타내던 표현이다. 초기 팝 아트 작가들이 추상 표현에 대항해서 예술표현과 현실세계와의 직접적 교류를 트자는 의도에서 한때 왕성하게 추구했었다. 파피에 콜레는 동시성의 문제 즉, 그림구조의 인위적인 요소의 배제와 회화적 공각과 물체 또한 상황등의 사실

12) C.G.융.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숲, 2002, p.152

13) L.Mumford. <예술과 기술-Art and Technics->김문화 역, (서울:을유문화사,1986)p.174

14) 오브제(object) - 그것을 가르킬 정도로 일반적인 것으로서 표류물, 나무뿌리, 돌, 기타 모든 오브제는 발견된 오브제라 할 수 있다.

15)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 평면에다가 여러 종이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현대회화의 기법. 오브제를 평면에 붙이기 시작한 최초의 시도로서 1912년경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사용된 이 새로운 기법의 출현은 현대회화의 중요한 계기가 됨.

적이고 물질성 인식의 시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상반성을 변경시키는 문제를 말끔히 씻어 버림으로써 실제의 물질이 화면상에서 표출되어지는 느낌이 사람에 따라서 매우 특수한 시각으로 인지되어 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서 그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인쇄된 신문지나 벽지에서 이미 전달되어지고 있는 눈속임 그림 효과를 하나의 기호로서 상징되는 것이다. 이렇듯 상징적인 것은 하나의 기호로서 작품 속에 나타나지는 오브제이든 평면표현이든 미술적 표현에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 II. 작품의 특성

### 1. 조형적 접근성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말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람 됨됨이의 여러 모습들을 느끼고 알게 된다. 그의 말 속에 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형예술 역시 그 형태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 조형은 그 사람의 느낌과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조형의 성격 중 인간의 내면 세계의 표현으로서 대상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표현으로서의 '재현적 조형', 대상의 본질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비형상적 형태로 표출하는 '추상적 조형', 수학적 질서를 추구할때와 같은 지적인 조작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사유적 조형' 그리고 자연이나 사회에 좀 더 쾌적하고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응적 조형'들이 있다.<sup>16)</sup>

본인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조형의 성격을 바탕으로 작업을 살펴 보았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는 사물들의 재현적 조형 방식에서는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초월해 좀 더 내면에 와 닿는 심상적인 본질을 표출하려고 노력한 것이며, 추상적 조형의 방식에서는 기본적 특질과 특성을 추출하여 건물들의 모습을 재구성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추구하며 외형을 재현해내는 일은 지극히 축약하거나 간소화시켜 배제시킨 것이다.

위 두 가지 조형성은 근본적으로는 사고와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지각에서 얻은 대상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번역하고 제작하는 표현 방식인 사유

---

16) 조형의 기초와 분석, 김춘일, (서울:미진사), 1991

적 조형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재현과 추상의 표현 전에 생각 속에서 표현할 이미지를 고안해내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미지를 얻지 않고, 먼저 현대라는 시대성을 안고 관심을 정한 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음으로 사유적 표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공통부분으로 설정하고, 개개인에게서 차이가 나거나 시대에 따라 바뀌거나 하는 유동적인 부분들을 사물들로 정하여 적응적 조형의 가장 중요한 주체성을 지니게 하였다.

예술가들에 의해 다루어지고있는 조형의 요소인 구성요소들 중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공간의 조형 요소는 공간이라는 외재성에 의해 자신의 내적원리를 생기게 하고 표명하는 그런 것이다. 제한된 공간안에서 기법적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강한 공간감을 주어 긴장감을 부여하였으며, 선의 집합을 보여주는 건물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의 평면도로 볼 수도 있다. 산에 올라가 도시의 밀집한 건물들을 볼 때의 조밀한 지역의 공중 조망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의 몽침들은 사물들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선이 서로 엉킨 부분일 것이다.

선의 움직임은 지저분하고 어색하다. 그것들은 허물어져 내려앉는 건물들의 모습 같기도 하다. 이것은 도시의 갈등과 좌절의 경험을 어지러운 난필로 서로 비유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형태는 일정한 외곽선에 쌓여진 고정된 외형의 개념 보다는 대상을 향한 인간의 시각과 감각을 통해 그 내면과 생명의 느낌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사물의 형태면에 있어 접근방법은 어느 특수한 상황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각각의 건물들과 사물들은 시대의 공유감성을 지니며 화면안에서 카오스(chaos)<sup>17)</sup>적 공간의 한가운데에 조직화되고 우주(宇宙)화된, 즉 중심을 갖춘

---

17) 카오스(chaos) - 그리스어.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이른다.

공간이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색채와 다양한 터치는 일종의 정신적, 심리적 반영으로서 화면에 함께 용해되고 있고 인간의 개성적인 본능과 욕구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의심함에

따라서 그 중요성과 풍부한 잠재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

형태들의 상호보완과 긴장, 단순과 복잡, 혼돈과 질서 같은 모순적인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자율적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었다.

응집된 심상에 기대면서 무의식적 삶의 집합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 2. 이상을 향한 무의식의 행위

본인의 작업에서는 이상을 향한 무의식의 행위로 현대사회의 발달로 물질문명의 시대를 맞이해 인간이 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대용물인 사물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더 나은 새로운 것으로 계속 포장하는 이유있는 행동이지만 이것은 무목적적이고 무의미한 행동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자신을 포장하려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반복된 행동들이 차츰 목소리를 잃고 무의식적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곧, 사물은 무의식의 표출로 보여지는 것이다.

무의식의 표출은 화면에 그린다는 행위(geste)<sup>18)</sup> 자체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놓임으로써, 그리는 주체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육체적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생명의 본질과 같이 우리의 내적 진화의 근본적인 성격이며 자유로운 무의식적

---

18) 행위:사람이 행하는 것. 여기서는 행하는 geste, 즉 예술적 이념이나 감각을 구체화 시킬 때 활발해지는 행위, 동작, 표현력 등 표현태도 전체를 의미함.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관)

행위의 표현으로 전개되면서 에너지를 표출한다. 무의식 행위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행위자체 이어야만 지속과 생명의 본질에 어울리는 것이다. 즉, 행위 그 자체야말로 지속이며, 생명의 흐름이기에 양적인 분해가 불가능한 순수 질적인 것이고 따라서 예견 불가능한 창조로서의 자유로운 것이다. 앞의 내용에 비춰볼 때 본인의 작업은 무의식적이고 무의도적이며 무목적적인 순간적 행위의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무의식적 행위는 반복외에 나타나는 균질성을 특징으로 필연적인 형식에 도달하는 구조화된 전면적인 화면(배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율적인 의지의 표현으로써 자발적이고 직관적인 행위에 의해 화면은 자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반복적인 패턴의 균형은 현시대의 대중적인 획일성을 역설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가치관과 인간성의 상실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현대 물질문명은 많은 모순점을 낳았다. 현대인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진정 추구해야 할 참다운 가치는 무엇인지 조차 모호하며,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대성은 양면적이다. 긍정적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부정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에 혼란을 가져왔다. 두 가지는 기술과 정보의 무한한 발전이 가져온 문명의 혜택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모순 된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상징하는 매개물로서의 사물 문명의 혜택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며, 본인의 작업에서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매개물이 즉, 사물인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의 응집의 고리로 연결되어 욕망의 극한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서로 대응하여 조율하는 관계구조를 맺기 위한 대안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내면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획일화면 현대사회에 어우러져 살아

가기위해 무의식속에서 충동과 감정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의식표면에 떠오르는 것을 저지하고 억압하는 힘이 있다.

이드(id)<sup>19)</sup>라고 불리는 것 안에는 쾌락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초자아(超自我)라고 불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사회적 질서를 대변하여 이드의 욕구가 드러나는 것을 억압한다. 무의식 내부에 있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무의식은 다양한 양상으로 작용하게 된다.<sup>20)</sup>

결국 무의식이란 개인의 생각과 욕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동시에 생각과 욕구가 그 안에서 제한되며 그것들에 의해 짜여 지는 표상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며 다양한 표상들이 얽혀지는 무대인 것이다.

### 3. 이미지를 통한 대상의 재인식

본인의 작업에서는 이미지란 재창조되었거나 복제된 어떤 불거리를 의미한다. 화가의 경우에는 그것이 캔버스나 종이위의 그림에 재구성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상을 보고 관찰하여 이미지를 재구성하거나 기존의 의미가 아닌 추상적이지 않게 상황에 맞게 또는 환기시켜 재인식이란 작업에 있어 사물들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사물들의 이미지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도록 재구성, 즉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이것은 본인의 서정적 상징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본인만의 고유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사물들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사물의 의미에 내재된 욕망이 작

---

19) 이드(id) - 자아·초자아와 함께 정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또는 한 영역으로서 여기서는 도덕도 선악도 없으며 논리적인 사고도 작용하지 않는다. 시간관념도 없고 무의식적이다. 어린 아기의 정신은 거의 전부 이드로 이루어졌는데, 뒤에 이 이드의 일부가 외계와 접촉 변화하여 자아가 형성 된다.

20) 이진경, <자크라캉:무의식의 이중구조와 주체화>[철학의 탈주], (서울:새길선서1995), p.17

업의 내용으로 재인식되어 상징하고 형식이 될 것이다.

내재된 욕망이라는 내밀한 세계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기호가 존재하면서 작품은 동적인 동시에 정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사물의 이미지 중에서도 옷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내재된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대용품이지만 본인의 작업안에서는 내면속 욕망의 분출로 무의식속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의 반복속 비판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를 차용해 대상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관념이 상징 이미지를 만들어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오는 조형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시대적 흐름과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의 사람들에게서 오는 내면세계의 공허함과 거기에서 오는 자아 존재의 상실감등을 직관적 감성영역을 통해 변조시킴으로써 본인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대상의 재인식은 사물의 본연의 본질이 아닌 재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상징 매체로서 그 사물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부여한 것이다.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궁금증을 품었으며, 그 궁금증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삶의 목적 또는 꿈 이상 등, 수많은 본질에 봉착하게 된다.

## IV. 작품 분석



【작품 1】 심리적 보호색, 32 × 22 × 15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1】 심리적 보호색, 32 × 22 × 15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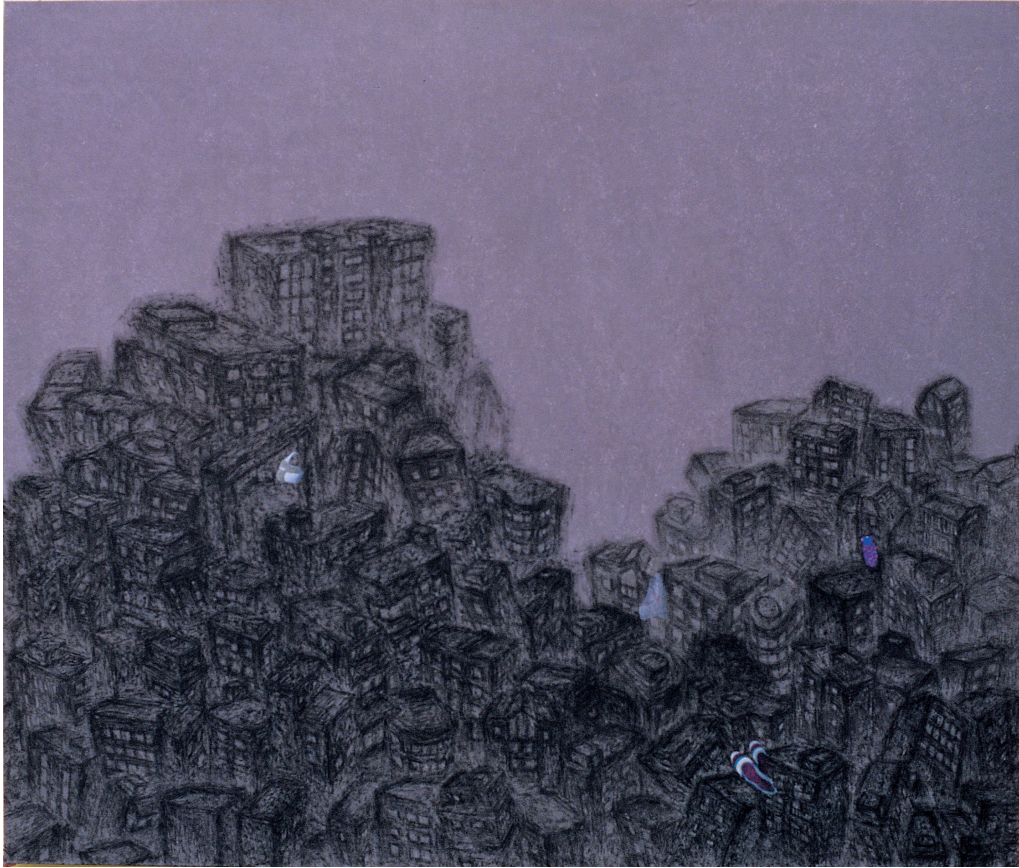
작품 모두 심리적 보호색이란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발달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이상을 향한 무의식적 행위와 몽상, 즉 인간의 욕망의 의미를 품고 있다.

MDF를 이용해 일반 화판에서 오는 평면적 느낌이 아닌 옆의 높이를 길게 해줌으로 입체적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변형해 보았다.

이 작업은 세필을 이용해 건필법으로 복잡하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있는 건물의 응집은 현대 사회의 발달로 도시화 된 평면도를 보여주려 하였다.

먹의 번짐과 발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교를 조금 타서 사회에서 나오는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화면 가까이 그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방과 신발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사물은 아직 온전한 재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즉, 인간의 이상 심리를 대변할 대용품인 그것들이 무의식화 되어가며 점점 초자아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작품 2】 심리적 보호색, 162× 123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2】 심리적 보호색, 162 × 123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은 퇴색된 느낌의 도시 이미지는 배경색의 변화에서 전해져오는 느낌이다.

다른 작품들의 배경과는 달리하여 새로운 느낌을 피하고자 하였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뒤엉켜 있는 듯한 모습의 건물들을 표현하였으며, 먹으로 배경을 그려나간것은 사물이 보여주는 요소 즉, 개성화 시키는 수단인 사물의 채색이 돋보임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사물은 아직 온전한 재현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품표현 내내 보여지는 사물들과 건물들과의 순환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재인식되는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건물에서 약간의 번짐 느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의 표현기법은 먹물에 검은 색 분채를 사용하고 아교를 넣어 줌으로써 발색의 효과와 착색의 효과를 보았다. 표현 의미로는 현대 문명의 발달속에서도 아직까지 퇴폐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사회를 표현하고자 평면의 작업에 쌓아올려 표현 할 수 있는 분채를 사용으로 강한 선의 느낌과 울동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3】 심리적 보호색, 503 × 1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3】 심리적 보호색, 503 × 1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이 작품은 심리적 보호색의 주제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써, 화판 세 개를 이어붙여 표현한 작품이다.

배경의 건물들 덩어리적 표현은 현대사회가 더욱 웅장하고 거대한 느낌이 들도록 유도했으며, 사물들이 색 배열로 점 차 가벼워질수 있는 부분을 잡아 줌으로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는 색 배열 구도로 시선을 잡아주고자 노력했고 물의 농도의 많음과 적음에 따라 가볍게 또는 무겁게 표현해 공간감의 효과도 노리고자 하였다.

사물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는 분체의 사용으로 여러 번 쌓아올려 오브제로 사용 된 사진들이 동떨어지는 느낌을 막았다.

조금 떨어져서 작품을 보았을때 어떤 부분이 사진을 붙이고 또, 어떤 부분이 그림으로서 재현을 했는지 말이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이상과 허황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사람 모두에게 의미를 떠나 똑같 다라는 욕망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작품 4】 심리적 보호색, 145.5 × 1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4】 심리적 보호색, 145.5 × 1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이 작품은 앞의 작품과는 달리 화면 전면에 건물을 채우고 가장자리에 여백을 남기는 구도적 배경을 선택하였다.

거친 갈필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는데 거친 갈필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붓 털의 3분의2를 잘라내고 남은 3분의 1로 물기가 없는 상태의 붓으로 먹을 묻여 부드럽게 그려나가듯 때론 거칠게 찍어 표현하였다.

[작품 1]의 경우는 붓 털을 잘라내지 않고 그려나가 약간의 부드러운 느낌과 계획에 의해 그리게 되었지만 [작품 4]의 이 작품은 붓 털을 잘라내어 종이에 닿게 되는 붓 털의 면적이 많아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느낌까지 나오게 되어 단순한 선들의 집합체 같지만 각자 개개의 건물들의 응집이라는 것을 엿 볼 수있는 것이다.



【작품 5】 심리적 보호색, 160 × 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5】 심리적 보호색, 160 × 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이 작품은 화판을 두 개 이어붙여 공간적 요소의 느낌을 잘 나타내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하는 이론과 해석들 중에서도 더 깊게 내면의 얘기를 즉, 내면의 욕망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간략하게 잘 표현된거라 생각한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비행기가 대변하는 것이다. 사회를 밑으로 두고 인간의 욕망을 위에도 배치 함으로서, 사회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법적인 면에서도 앞의 작품들과 다름이 없다.

다만, 색채의 변화로 사회의 분위기를 말해주었다.



【작품 6】 심리적 보호색, 80 × 12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6】 심리적 보호색, 80 × 12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이 작품은 심리적 보호색이라는 주제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재료의 사용에서는 오브제를 사용한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을때다. 그래서 구도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려했던 때이기도 하다.

다른 작품들과는 약간 다른 구도법을 지니고 있다.

정면으로 있는 건물과 크기면에서도 다소 다른 모습이 있고, 형태면에서도 다른것에 비해 커서 더 설명적이다.

초기에 그렸던 작품이라 전시를 하기 전까지도 계속 정리하고 다듬었던 작품이다.

열게 여러 번 채색하고 쌓아올린 사물의 채색들은 또 한번 재현의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재해석으로서의 범주로 인식이 된다.



【작품 7】 심리적 보호색, 110 × 82cm, 순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7】 심리적 보호색, 110 × 82cm, 순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4]와 비슷한 시기에 연구한 것으로 전면에 건물을 채우고 가장자리에 여백을 남기는 구도 공간을 선택하였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순지에다 아교반수를 하지않고, 아크릴 물감을 열게 바르고 붓 털을 자른 붓으로 묘사하며 표현하였다. 물기가 없는 상태의 붓으로 먹을 묻어 부드럽게 그려나가듯 때론 거칠게 찍어 표현하였다. 아크릴 물감으로 밑색을 하여 분채에서 얻을수 없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재료에서 엿볼수 있듯이 섞이지 못하는 재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건물의 크기 또한 변화를 주어 음울적인 울동감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였다.

## V.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작업 활동에 있어 사물의 상징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사물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며 상징적 의미로 보여지는 것을 연구하였다. 또한 상징성의 극대화를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재현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적 조형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특히 일부분이지만 오브제의 사용과 상징적 기호의 표현들을 시각적이고 조형이미지의 모습으로 표현하려하였다. 그래서 종이를 붙여보는 표현도 연구해 보았으며 이것은 평면이 주는 연약성과 왜소성에서 벗어나보려는 표현이었다.

‘인간의 욕망은 사물이다’ 라고 본인 작업에서는 정의된다. 그래서 본인의 작업은 어떠한 사물이나 형태에 주관적 상징성을 부여시켜, 그 의미를 재해석시키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개인의 생각과 욕구가 무의식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제한되며 생각과 욕구에 의해 짜여지는 표상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무의식의 상념들이 어떻게 외부로 표출되고 본인의 작업에 어떤 의미로 재해석시켜 화면으로 보여줬는가에 비중을 두었다.

대상의 단순한 모방은 지금에 와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결코, 재현된 이미지가 아니고 그것은 의도적 변형의 과정없이 단지 대상을 모방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외향성과 내향성, 무의식과 의식,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등의 상반되는 양상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인간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다.

외향적인 예술은 예술가의 외부적 경험을 변용하는 데서 생기고 이와 반면

에 내향적인 예술은 내면적 요소가 예술가의 외면적 의식상태를 압도함으로써 창작된다고 하였다. 이는 자율적인 무의식의 심상발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본인 작업은 단순한 이미지 재현과 그것의 일반적인 의미의 풀이가 아닌 좀더 진지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의미부여와 재해석 그리고 이상을 향한 무의식의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무목적적이고 무의미한 행동들을 비판적 시각으로서 표현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자기 성찰과, 반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에 대한 믿거름이 될 것 이라고 믿고 다음 작품 제작 연구에 있어 개성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J.야코비. 이태동 역, [칼 융의 심리학], 서울: 성문사 1982.
- 올란드 야고비, 권오식 역,[칼 융의 심리학 해석], 서울: 흥신문화사, 1990.
-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서울: 열린책들, 1998.
- C.G. 융.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 2002.
- L.Mumford. 김문화 역, [예술과 기술-Art and Technics-], 서울: 을유문화사, 1986.
- 김춘일,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 이진경, [자크라캉:무의식의 이중구조와 주체화][철학의 탈주], 서울: 새길선서, 1995.
- K. 해리스. 오병남, 최현희 역,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울: 서광사, 1988.

### 논문

- 안성하, [일상이미지의 재현을 통한 양가성 표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2003.
- 차형석. [오브제를 통한 상징성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2003.
- 이준구, [무의식 표출을 통한 생명력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2002.
- 장선규, [플라주의 전개와 그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1985

## 사전

이윤기, [세계문화 상징 사전], 서울: 민음사, 200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 일보사, 1987.

남영신, [한 + 국어사전 中], 서울: 성안당, 2005.

# **ABSTRACT**

The eternal fitness of things  
an unconscious mean  
-Based on the researcher's work-

Kim, Min J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is one product that is produced from our experience with the real world, and is a mirror that reflects the times. As Arnold Hauser say, "problematizing on meaning of life, qualifications of men, and existing values is the purpose and content of art"; for art, the importance of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men and experiencing daily life is that much big. Therefore, because the author is influenced by the trend of the times and the reality, and the artwork reflects them, the author was able to discover current society's problems that we live in through things reflected on the artworks.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gives men many material things in order to lead more convenient and abundant lives; while, on the opposite side, it makes men mentally languid. Men, who are left as unstable beings due to modern society's development, always possess a feeling of uneasiness, and sometimes this becomes a cause for contradiction and conflict.

This appearance of reality, that is experienced and observed by the artist, undergoes symbolism and visualization through meaningful format. It is an act of realizing a dream that can't be done in reality that possesses authenticity which transcends consciousness of reality.

It is never a recreated image; and by looking at objects with their meanings in mind and the intention to express them with subjective worth without seeking a process of intentional transformation, the author seeks to express the invisible.

Essence of an object is expressed through one's inner world. In other words, becoming a creator with power of reason and imagination innate to oneself, it is taking the role of becoming conscious of authentic world's inner things and concretizing them to form a new mental domain.

Men, who feel isolation and mental poverty within modern civilization, find themselves needing reappraisal of the subject and rediscovery of the human nature through self-criticism, and try exploring philosophic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objects again.

The paper seeks to recognize epitome of modern men, who specul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society and human relationships and who are confused by pursuits of material needs and spiritual value, and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ruthful recreation of daily images that reflect them and the meanings of daily images which serve as symbolic media, the author seeks to endow the artwork with subjective perspective.